

폐경기 지난 할머니 수정란 임신 정당한가

양육능력 회의...유럽전역 '윤리성' 논란

“폐경기가 훨씬 지난 할머니가 젊은 여성의 난자를 이식 받아 아기를 낳는 게 바람직한가.”

요즘 유럽 전역이 과학의 발달과 윤리성의 조화 문제로 들끓고 있다.

이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은 지난해 12월25일 영국의 59살 된 한 여성이 수정란을 이식받아 쌍둥이를 낳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로부터 3일 뒤 이번엔 61살 된 이탈리아의 여성 사업가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수태에 성공해 현재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 할머니는 젊은 흑인의 난자를, 이탈리아 할머니는 20대 백인 여성의 난자를 제공받았고 정자는 양쪽 모두 남편의 것을 이용했다.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고령 출산은 지난 56년 10월 미국에서 57살에 아기를 낳는 키슬러 부인으로 물론 자연임신이었다.

즉각 종교·사회단체들과 정부관리들이 생명윤리와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신과정이 모두 인위적일 뿐 아니라 이렇게 늙은 어머니가 과연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영국의 버지니아 보톱리 보건장관은 “여성이 아기를 임태할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아기가 적절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의 로마노 포를레오 상원의원은 “가임 연령이 지나 아기를 갖는 여성은 일종의 생물학적 인큐베이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수정란 이식을 통한 젊은 불임여성들의 출산 방식이 일반화한 마당에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아기를 가질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란 이식을 통해 폐경기가 훨씬 지난 61살에 임신에 성공한 이탈리아의 토사나 달라 코르테 부부. 이들은 지난 92년 19살 난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인공수정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외지에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샌디 매카라 박사는 “병든 19살 여성보다 건강하고 유복한 환경의 59살 여성이 아기를 갖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두 여성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해준 이탈리아의 안티노리 박사는 “남성이 60살에 아기를 임태시킨다면 사람들은 놀랍다고 경탄할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그 나이에 아기를 갖는 것은 왜 비난하는가”라고 항변했다.

이 와중에서 프랑스 상원은 오는 17일부터 폐경기가 지난 여성의 인공수정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한다. 이 토론을 계기로 유럽은 더욱 뜨거운 생명윤리 논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박찬수 기자*